

**쿠마리들의 발티를 위해 아비약트 밥다다가 들려주신 다정하고 고귀한 말씀들 .**

오늘 밥다다는 어디서 너희들 모두와의 만남을 축하하고 있느냐? 너희들 모두 어떤 장소에 앉아 있느냐? 너희들은 대양과 강들이 만나는 곳에서 만남을 축하하고 있다. 너희들은 대양의 해안가와 같지 않느냐? 단지 대양뿐 아니라 이토록 많은 강들이 만나기도 하는 곳이니 얼마나 고귀한 장소이겠느냐? 심지어 대양조차도 강들을 만나는 일을 참으로 좋아한다. 다른 어느 시대에 그러한 만남이 일어나겠느냐? 이 시대의 만남은 전체 사이클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억되고 축하될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만남을 축하하려고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이러한 이유로 너희는 모든 곳에서 달려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대양에 합쳐져서 지식의 대양 마스터가 되었다, 즉 아버지와 대등한, 무한한 형태에 안정되었다. 너희는 무한한 이 경험을 하고 있느냐? 무한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영혼들에 대해 자애로운 태도를 지니고 세계의 시혜자 마스터가 된다는 뜻이며, 단지 너희 자신에게만, 또는 너희와 한정된 연결을 가진 영혼들에게만 자애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 대해서 자애로운 태도를 가진다는 뜻이다. “나는 브라마 쿠마리가 되었고, 순수한 영혼이 되었다!” 너희가 각자의 발전과 성취에 만족한 채 계속 전진하는 것은 아버지와 대등하게 무한한 태도에 안정해 있는 것이 아니다. 제한된 태도는 너희가 그저 제 자신에게만 만족스러워하는 태도를 가진다는 뜻이다. 너희는 그저 여기에만 남아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일부 어떤 자녀들은 황금의 기회와 금메달을 잡고서 무한한 봉사, 무한한 성취에 시간을 쓰지 않고, 은메달에 행복해하며, “나는 잘 전진하고 있다, 나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세상의 책임도 잘 이행하고 있다. 집회 안에서도 산스카르의 충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버지와 대등한 무한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는 세계의 시혜자인데 자녀가 그저 자아의 시혜자일 뿐이라면 그 둘이 서로 어울리겠느냐? 너희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조차 싫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되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모든 보물의 주인인 분의 자녀가 보물들의 대 기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어떤 이가 너희들 중 누구에게든, 아버지의 모든 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권리를 가졌느냐고 묻는다면 너희는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너희가 보물들을 모두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먹고 마시고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것들을 나눠줘서 늘리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것들을 어떻게 나누겠느냐? 기타 파트살라를 열었느냐, 아니면 그저 기회가 있을 때만 나누는 것으로 행복해하느냐? 너희는 무한한 아버지에게서 무한한 성취를 받았다. 그러므로 무한한 열성과 열의를 유지해라. 합류시대에 쿠마리의 삶은 축복들로 가득한 가장 고귀한 생이다. 그러므로 드라마에 따라서 특별한 영혼인 너희들은 당연히 모두가 축복으로 가득한 생을 받았다. 너희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주고 위대한 기부를 하는 데 너희의 삶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제껏 자연히 받아온 축복으로 너희는 고결한 행위의 펜으로 원하는 만큼 길게 선을 그을 수 있다. 이 축복은 지금 이때에 있다. 이 축복은 지금 이때에 있고, 쿠마리의 삶은 이 축복을 가지며, 아버지는 축복의 공여자다. 과업도 역시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완전히 잘 이용했느냐? 너희는 21생 동안 지속되는 선을 확실히 긋고 21 세대 동안 변함없이 완전해지는 기회를 취했느냐? 너희는 쿠마리의 삶에서 원하는 만큼 마음껏 행할 수 있다. 너희들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행운을 받았다. 너희 스스로 자문해봐라, 나는 자유로운가, 의존적인가? 의존하고 있는 자들의 굴레는 그들 자신의 마음이 가지는 낭비적이고 나약한 생각들의 덩어리다. 너희들 스스로 만든 덩어리 너희가 붙들리지는 않을 테지? 의문들의 덩어리 있느냐? 너희가 만든 덩어리 만일 사진으로 찍는다면 그것은 의문부호 같을 것이다. 떠오르는 의문들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 이런 것들이 덧이다. 너희들에게 전에 말해주었듯이 합류시대에 브라민들의 강력하고 변함없는 생각은, “일어나는 일은 뭐든 자애롭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전체 모든 일들 가운데 최고일 것이다” 라는 것이다. 나쁜 날들과 무자비한 시절은 이제 끝났으므로 이것은 덧을 끝내는 생각이다. 합류시대의 모든 날은 다 중요한 날이고, 나쁜 날이 아니다. 너희의 모든 날이 축제다. 날마다 매일 축하되어야 한다. 이 강력한 생각으로 너희는 낭비적인 생각이라는 덧을 끝낼 수 있다.

쿠마리들은 밥다다와 브라민 가문의 자부심이다. 쿠마리들은 기회를 첫 번째로 받는다. 나이 어린 쿠마리들이 선생이 되면 판다바들은 흥미로워하고, 그들은 다디들과 디디들이 된다. 너희는 참으로 많은 기회를 받는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아직도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뭐라고 얘기할지 아느냐? “나는 협조적인 상태로 머물 테지만 완전히 헌신하지는 않겠다.” 제 스스로를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대등해지겠느냐? 아버지는 뭘 했느냐? 그는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았느냐? 아니면 그가 단지 협조하는 상태로만 머물렀느냐? 아버지 브라마는 뭘 했느냐? 그 자신을 완전히 바쳤느냐, 아니면 그저 협조적인 상태로만 남았느냐? 자가담바는 뭘 했느냐? 그녀도 역시 쿠마리였다. 그러니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너희의 자매들을 따르겠느냐?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그것이 딱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 그것은 자매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는 뭘 하겠느냐? 너희의 두려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너희의 나약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무엇을 취하겠느냐? 너희는 금메달을 갖겠느냐, 아니면 은메달도 좋으냐? 너희들 자신의 나약함을 보지 마라. 그것들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진다. 약해지지 말고 또 남들의 나약함도 보지 마라! 뭘 해야 할지 이해하느냐?

밥다다는 쿠마리들을 보며 매우 기쁘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불행해 하는 반면, 오는 쿠마리들의 수가 더 많을수록 밥다다의 행복은 더 커지는데 왜냐하면 밥다다는 모든 쿠마리가 세계의 시혜자이며 위대한 기부자들이고 축복의 공여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쿠마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이해하느냐? 오늘은 쿠마리들을 위한 특별한 날이다. 바라트에서 그들은 특별히 제8일째 (힌두교 달력에 따라)에 쿠마리들을 초대한다. 그러므로 밥다다도 역시 제8일을 축하하고 있다. 쿠마리들 하나하나가 8가지 힘의 형상이다. 앓차.

축복으로 가득한 고결한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황금의 기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21생 동안의 고귀한 행운의 선을 긋는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자유로운 이가 되는 축복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쉬바의 가문에 속하는 브라마 쿠마리들에게, 특히 고귀한 쿠마리들과 그리고 동시에 만남을 축하하고 있는 수백만 배로 복 있는 영혼들에게도 역시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카르마의 고통에 대해 승리하는 카르마의 요가 . 너희는 카르마의 고통에 대한 승리를 달성한, 승리하는 보석들이 아니냐? 저 사람들은 그들의 카르마의 결과에 대해 고통을 당해야 하는 반면 너희들은 카르마 요기들이다. 너희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영원히 불태워버린 자들이다. 너희는 21생 동안 카르마의 고통이라는 이름이나 흔적마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태웠다. 뭔가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그것을 그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에 의해 불태워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너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작별을 고하려고 오는데, 왜냐하면 카르마의 고통조차도 다른 어떤 때도 아닌, 오직 지금 이때에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것은 시시때때로 기회를 살핀다. 여기서서는 얻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은 가버린다.

다디와 디디를 보시며 . 이처럼 많은 손을 보며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으냐? 너희가 이제껏 품어온

꿈이 실현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렇게 많은 손들과 참으로 많은 수의 센터들을 꿈꿔 왔는데, 왜냐하면 다디와 디디는 그러한 손들을 최대한으로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 많은 수의 손들을 보는 행복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바라트 출신의 쿠마리들과 외국에서 온 쿠마리들 간에는 차이가 하나 있다. 너희들은 어째서 소득을 벌 필요가 있느냐? (누군가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너희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그 학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 학위의 가치는 너희가 직업을 가질 때 (실제로 그것을 쓸 때) 있다. 심지어 그때도 공부한 것을 실행하지 않고 가사일에 매달려 지낼 따름이라면, “공부한 것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문맹인 자들조차 아이들은 돌볼 수 있고, 그들 (교육받은 자들)도 역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러니 차이가 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것을 공부하고 봉사의 무대에 올라가면 그때 이 학위는 가치가 있다. 너희는 여기서 기회를 받고 학위를 자동적으로 받는다. 이 학위가 작으냐? 자가담바 사라스와티가 얼마나 큰 학위를 받았는지 보라! 여기서 받는 학위를 너희는 묘사조차 시작할 수 없을 정도다. 너희는 그렇게 엄청난 학위를, 지식의 대양 마스터 (석사),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 (석사)... 등을 이미 받았느냐? 이것에 학사와 석사 학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의사들이며 공학자들이 모두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

**밥다다가 여러 그룹의 쿠마리들을 만나심 .**

1) 너희들은 축복 받은 쿠마리들이 아니냐? 너희는 천천히 걷는 자들이냐, 날아다니는 자들이냐? 날아다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한정된 땅을 이미 손에서 놓은 자들이라는 뜻이다. 너희가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은 일단 땅을 떠나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저 아래에서는 날아다닐 수 없다. 아래쪽에 있는 자들은 사냥꾼에게 잡힌다. 너희가 아래로 내려오면 새장에 갇힌다. 날아다니는 자들은 새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처럼 너희는 새장을 이미 떠났느냐? 너희는 뭘 하려느냐? 직업을 가지겠느냐? 너희는 왕관을 쓰겠느냐, 짐 (바구니)을 머리에 이고 다니려느냐? 왕관이 있는 곳에는 짐이 있을 수 없다. 짐을 머리에 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왕관을 벗을 때뿐이다. 짐을 인다면 왕관은 벗겨져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왕관을 쓰기를 원하느냐, 짐을 이고 다니기를 원하느냐? 지금 너희에게는 세계 봉사의 책임이라는 왕관이 있는 반면 미래에는 너희가 보석이 박힌 왕관을 가질 것이다. 지금은 세계 봉사의 왕관을 써라, 그러면 세상은 너희를 위대한 영혼, 축복 받은 영혼이라 여길 것이다. 그렇게 큰 왕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짐을 이어 나를 수 있겠느냐? 너희는 63생 동안 짐을 짊어져 왔다. 너희들은 지금 왕관을 받고 있으니 그것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지는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의 상황이 그러하냐? 친척들을 차츰 만족시킴으로써 너희는 굴레에서 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 굴레에서 해방될 계획을 세워라. 무한하게 봉사하겠다는 목표를 늘 간직해라, 그러면 한정된 굴레들은 자동적으로 전부 다 끊어질 것이다. 만일 너희가 양쪽 모두에 목표를 가진다면 너희는 세속에서도 영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뚜렷한 목표를 가질 때는 너희가 친척들에게서도 역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단지 어쩔 수 없어서 친척들을 고려하지만, 너희의 지각에 영적인 봉사가 들어있을 때는 그것이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변할 것이다.

2) 쿠마리인 너희들 모두 너희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느냐,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삶에 대해 결정하는 데 더 오래 걸릴수록 성취할 시간이 더 많이 지나버릴 테니, 이런 이유로 결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생각하고 행동하며, 이는 최상급의 거래를 하는 자가 되는 길이다. 1초에 결정하는 자들은 금메달을 받는다. 많이 생각해본 후에 결정하는 자들은 은메달을, 그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도 결정할 수 없는 자들은 동메달을 받는다. 너희들은 모두 금메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황금시대에 갈

것이니 금메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중에 라마나 시타가 되겠다고 손드는 자는 아무도 없다. 락쉬미와 나라얀은 황금시대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제 스스로를 위해 그런 행운의 선을 이미 그었느냐, 아니면 때로는 용기가 없느냐? 끊임없이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 남들의 나약함을 보면서 “모르겠어, 어쩌면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며 낙담하지는 마라. 어떤 이가 도랑에 빠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도 역시 그 안에 빠지겠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구하려고 애쓰겠느냐? 그러니 결코 낙담하지 마라. 열성과 열의라는 두 날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날아다녀라. 어떤 것에도 끌리지 마라. 너희를 잡으려고 애쓰는 사냥꾼은 아주 좋은 곡식 낱알을 던진다. 마야도 역시 때로 똑같은 일을 하므로 항상 날아다니는 단계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늘 안전할 것이다. 과거에 대해 생각하는 것, 약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뒤돌아보는 것이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라반이 올 것이라는 의미다.

3) 너희는 삭티 군대가 아니냐? 너희들 모두 손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다. 승리의 깃발이 온 세상 전체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주에만 있느냐? 세상 전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자들은 제한된 봉사자가 아닌, 세계 봉사자, 무한한 봉사자일 것이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 봉사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무한한 봉사를 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느냐? 너희는 세계의 삭티들이니 너희 스스로를 내어주어라. 두 달이나 여섯 달 동안 휴가를 내고 이것을 실제로 한번 해봐라. 한 걸음을 떼면 너희는 열 걸음을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한두 달 현장에 나가서 너희 스스로 이를 경험해봐라. 위대한 뭔가에 마음을 정하면 더 낮은 수준의 것은 손에서 자동적으로 놓게 된다. 그러니 이것을 한번 해봐라. 합류시대는 전진할 때다. 너희는 브라마 쿠마리가 되었으니 지식의 화신이 되었고, 이것에 시간을 많이 썼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몇 발짝 앞으로 내딛고 그냥 한곳에 머물러 있지는 마라. 나약한 자들은 쳐다보지 마라. 삭티들을 보라, 어째서 너희가 양들을 보느냐? 양을 볼 때는 내려다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겁이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어” 라고 생각한다. 나약한 자들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진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지 마라! 삭티들을 보라, 그러면 너희의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Blessing:** 결합된 형태로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이 항시 너희와 함께 임해 있다고 여김으로써 그 동반을 경험해라.

사랑으로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 자녀들은 그를 가까이 경험하고 너희는 그의 동반도 역시 경험한다. 너희가 진심에서 우러나 “바바”라 하자마자 마음의 위로자는 너희 앞에 임한다. 이런 이유로 주님이 임하고 있다, 라고 일컬어진다. 그는 항시 임해 있다. 사랑의 이 방법을 쓰면 주님은 모든 이와 함께 모든 장소에 임하게 된다. 오직 이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것에 관해 알 것이다. “카란하르와 카라반하르가 카란카라반하르 안에 합쳐져 있다”는 것이 기억된다. 결합된 형태로 있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언제나 그의 동반을 경험한다.

**Slogan:** 너희의 마음이 한결같은 영적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삶의 예술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